

# 조선대, 문예위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선정

미술체육대학(미술), 12월까지 1억9000만원 지원 받아  
광주시립미술관·금호미술관 등 6개 기관과 현장 실습 연계

조선대학교(총장 민형돈) 미술체육대학(미술)이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3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 사업' (예비예술인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예비예술인지원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1억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로써 조선대는 예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연계 사업을 진행, 향후 지역에서도 스타 아티스트가 탄생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예술인지원 사업은 예비예술인(만 29세 이하)들을 대상으로 예술대학과 미술관, 예술단체, 문화재단, 예술기업 등 예술 환경 주체들이 협력해 현장연계 교육과 실습과정을 토대로 창작 방향을 모색하고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를 위해 조선대 미술체육대학(미술)은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금호미술관,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라피아(LapiA), ㈜엘리스 등 6개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후 '조선대학교 미술체육대학(미술) 예비예술인 양성 지원 사업-

CSU Star Artist 양성 사업(START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START 사업의 4대 핵심 키워드는 'Create' (작품 창·제작), 'Management' (작가 매니지먼트), 'Exhibition' (전시기획 및 현장), 'Public Art' (도시재생과 공공미술) 등이다.

이번 사업 총괄수행책임자인 조운성 미술체육대학 부학장은 "이번 사업의 4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비예술인들이 다양한 미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조대미술의 역사와 전통을 잇고 또한 새로운 변화의 예술 생태계에 개성있고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는 예비예술인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체육대학(미술) 측은 이번 선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순수미술 전공자 감소로 이어지는 시기에 소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술체육대학(미술)은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공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부, 회화학부, 문화콘텐츠학부로 구성돼 있으며 1500여명이 재학 중이다.



한국문화예술위가 후원하는 '2023 예비예술인지원 사업'에 선정된 조선대 미술대학 전경.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월 예술대학(원) 내 예비예술인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예비예술인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1건이 접수됐으며 심의회의를 통해 총 38건이 최종 선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뮤지컬 '광주' 공연 기간에  
'임 행진곡' 부르기 릴레이



지난 1982년 1982년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곡으로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주의 투쟁의 현장에 늘 함께해온 민중의 노래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상징 곡으로 해외에서도 독재에 저항하는 곡으로 불려졌다.

뮤지컬 '광주' (16일부터 21일까지·사진) 공연 기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릴레이 이벤트가 추진돼 화제다.

이번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는 빛고을시민광장에서 펼쳐지며, 실천하는 오월 정신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 정신의 대중화를 꾀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추진한다. 시민 누구나 개인 혹은 2인 이상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며, 총 25팀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가창, 연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릴레이를 진행하며, 이번 참여자를 대상으로 뮤지컬 '광주' 관람권 및 소정의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 릴레이는 뮤지컬 '광주' 공연과 맞물려 진행되는 이벤트로 오월 광주정신을 확산하고 계승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로 성공적인 공연은 물론 노래 자체도 많이 불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삶에 대한 진실성과 소박한 아름다움

광양 출신 김혜련 시인 '시간 대여점'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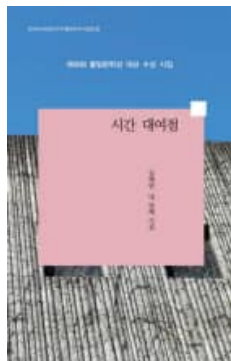
'순천만국가정원은 내면의 수많은 불순물들을 고성능 드림세탁기처럼 세탁해 준다'

광양 출신 김혜련 시인은 네 번째 시집 서문에서 그렇게 노래했다.

시인은 순천만국가정원에 매료돼 순천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시인에게 순천만국가정원이 어떤 존재로 각인돼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혜련 시인이 네 번째 시집 '시간 대여점' (그림과책·사진)을 펴냈다.

제19회 풀잎문학상 대상 수상한 바 있는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서 삶에 대한 진실성과 소박한 아름다움을 특유의 서정적인 언어로 풀어낸다. 세 번째 시집 '야식일기'를 발간한 지 3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냉혹한 현실과 삶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어



수 있다.

작품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노래한 작품들로 구성돼 있으며, 제2부는 노동 현장의 애환

로 노래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을 예찬하는 14편이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언급한대로 고향인 광양에서 순천으로 이주한 것만 봐도 정원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

과 인간애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담겨 있다.

3부는 표제작 '그리움이 알을 낳네'를 시작으로 일상의 체험을 서정적인 언어로 갈무리한 작품들이다. 언급한대로 4부는 순천만국가정원을 모티브로 창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편 김혜련 시인은 "정원박람회 개최와 맞물려 시집을 발간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름다움과 그곳에 담긴 의미 등을 알리는 작품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련 시인은 2000년 월간 '문학21', 2007년 월간 '시사문단' 등단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전남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 문학 분야 작가로 선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꿈이란 무엇일까?

홍원표 작가 초대전, 26일까지 전남대박물관

꿈이란 무엇일까? 대체로 이루고 싶은 것 또는 되고 싶은 어떤 모습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꿈의 실체는 개인마다 다르고 또한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띤다.

꿈을 깊이있게 다면적으로 사유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남대학교박물관(관장 정금희)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홍원표 작가 초대전 '꿈(Dream)'에서 '꿈'의 다양한 양상을 마주할 수 있다.

작가는 꿈은 욕망이나 욕구와 유사해 끊임없이 소유욕을 유발하고, 누구나 각양각색의 '꿈'을 소유하거나 지향하며 살아간다고 본다. 소유와 지향은 꿈의 가장 일반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꿈'의 보파리를 갖고 일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놓여 있다. 작가가 작품에 자신의 욕

망과 욕구를 투영하는 것 또한 꿈의 맥락으로 수렴된다 하겠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불확실한 작가 삶의 여행길과 현실적인 여행을 동경하는 내용을 그린 작품 18점이 관객들을 만난다. 이정표 모양의 보파리 형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진도 출품돼 있다.

아울러 작품은 포퍼먼스 작업들, 커다란 호주머니형식의 설치작업과 원시적인 집의 형태를 빌어 모델링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휴여 있고 있거나 희미해진 꿈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저마다 각자의 내면에 갖는 소중한 꿈의 세계와 자연스레 마주하고 사유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꿈'

## 10일 국보 '구례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보수 고불식

석등은 부처의 광명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광명등(光明燈)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웅전이나 탑과 같은 건축물 앞에 배치된다.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3단의 받침돌을 두고, 위로는 옥개석을 올린 후 꼭대기에는 상륜부로 장식했다.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부분 해체 후 보수를 위한 고불식이 개최된다. 10일 오후 1시 10분 화엄사 경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사진)을 부분 해체 보수하는 고불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각황전 앞 석등은 그간 정기조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 석재 표면에 다수의 박리를 비롯해 화사석과 상대석 균열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 해체·보존처리가 결정됐다.

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석등의 8개 부재를 부분 해체해 오는 12일 대전에 위치한 국립문화재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문화재청 제공>

연구원으로 이송해 신석 복원 등의 공정을 통해 보존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해체하지 않는 간주석과 하대석, 기단부는 내년부터 현장에서 보존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